

# 근대 건축과 고전 건축의 전통성 문제

— 이태리 합리주의 건축의 가능성에 대한 건축사적 재평가 —

任爽宰

(원도시 건축 근무, 경북대학교 강사)

## 1. 서론

근대 건축운동(Modern Movements)에서 이태리의 위치는 최근까지 과소평가되어 왔다. 이태리는 근대 건축운동에 이렇다할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성급히 평가되어 왔고, 따라서 근대 건축운동을 다룬 건축사의 주요 저서에서 이태리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시피 해왔다. 이태리의 근대 건축운동에 대한 연구는 이태리내에서 이태리학자들 사이에만 있어 왔고 여기에 대한 영어권 및 전체적인 관심은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미미한 편이었다.

그런데, 아이러니칼하게도 이태리 근대 건축에 대한 관심은 근대 건축운동을 실패로 규정짓고 거기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포스트모던 건축에 의해 야기되었다. 알도로시를 중심으로한 유럽의 고전 부활운동으로 대표되는 70년대의 포스트모던 건축운동이 시작되면서 로시는 1930년대에 전성예 달했던 이태리 합리주의 건축(Italian Rationalism)을 자신의 건축적 배경으로 소개하였던 것이다.<sup>1)</sup> 이후 이태리 합리주의 건축에 대한 연구

가 이태리어권 밖에서도 소개되기 시작했고 동시에 이태리 합리주의 건축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던 여러 건축가들도 전세계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했다. 로시가 이태리 합리주의 건축에서 포착했던 가장 큰 매력은 이태리 고전 건축의 전통이 근대 건축어휘로 재해석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이 점은 피터 아이젠만도 마찬가지로 느꼈었고 그 역시 테라니(Terragni)의 연구를 자신의 해체주의 건축의 주요 배경 중의 하나로 삼았다.<sup>2)</sup> 즉 유럽의 기타 선진국들에서 행해지던 근대 건축과는 다른 면을 이태리 합리주의는 갖고 있었고 그것은 다름아닌 전통의 문제였으며 이 점에 있어서 70년대 이후 현대 건축이 나아갈 바를 제시해 줄 수 있다고 믿어졌던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태리 합리주의 건축이 어떻게

Internazionale di Architettura (Milano, Italy : Franco Angeli Editore, 1973) : pp. 13-22.

2) Peter Eisenmann, "Dall' Oggetto alla Relazionalita : la casa del Fascio di Terragni" in Giuseppe Terragni-la casa del Fascio, ed. by L. Ferrario (Roma : Istituto Mides, 1982) : pp. 48-54.

1) Aldo Rossi, "Introduzione" in Architettura Razionale, XV Triennale di Milano-Sezione

‘전통’이라는 문제로 고민했으며 이 문제에 덧붙여 파시즘이라는 건축의적인 시대상황과 맞물려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했음을 밝히고 이태리 합리주의 건축이 지니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근대 건축에서의 합리주의 경향과 이태리 합리주의 건축

근대 건축에 있어서의 가장 중심적인 논쟁의 주제는 ‘전통’과 ‘장식’의 수용방식에 관한 문제였다. 이것들의 완전 단절에서부터 시대적 재해석 및 긍정적 수용 등 여러 가지 주장들이 제기되었으며, 약 20-30 가지에 달하는 근대 건축의 여러 운동들을 이해하는 좋은 관점들 중의 하나는 위와 같은 ‘전통’과 ‘장식’의 수용방식들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근대 건축이 무조건 전통과 장식을 거부한 것으로 비추어지는 것은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급박해진 전후복구 문제와 2차대전 이후 세계를 이끌어간 산업자본주의의 개발건축에 기인한 국제주의 양식의 번창에 따른 결과이며 실제 1930년대이전의 근대 건축운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적 양상을 띠었던 것이다. 합리주의 건축(Rationalism)은 이런 다양한 경향 중, 과정과 결과 사이의 최소한적이고 논리적인 필연성을 주장하는 운동이었다. 사실 합리주의란 하나의 구체적인 양식을 낳은 ‘-ism’이라기 보다는 건축적 사고의 한 유형으로 보는 것이 옳은 것 같다.<sup>3)</sup> 실제로 근대 건축과 관련된 주요 건축가들은 상당수가 합리주의 건축가로 분류될 수 있지만<sup>4)</sup> 그들의 결과물들은 제각기 달라서 합리주의 건축이란 이름 아래 통일된 양식을 추출해

내는 것은 힘들기 때문이다. 물론 위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합리주의를 국제주의 양식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1900년대 초에서 30년대까지 있었던 여러 다양하고 가치있는 실험들의 존재가치를 실제 지어진 건물 수로만 평가하여 잠시 반짝했던 습작수준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합리주의는 근대 건축을 이끌었던 거의 모든 건축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건축적 해석방식의 한 유형이었다.<sup>5)</sup> 과정과 결과 사이의 최소한적이고 논리적인 필연성을 주장하는 합리주의는, 따라서 건물의 핵심적 성립 근거와는 거리가 먼 장식의 사용을 배격했다. 그러나 ‘전통’의 수용문제에 있어서는 상황이 좀 달랐다. 고전주의 건축이 갖고 있던 법적적 엄밀성과 비례 및 기하형태에 의한 추상성을 합리주의적 건축 해석방식의 한 유형으로 보고 이와 같은 고전 건축의 전통을 이어 받으려는 건축가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고딕 건축의 구조적 유기성을 과정과 결과 사이의 최소한적이고 논리적인 필연성의 가장 모범적 예로 받아들여려는 건축가들도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고전 건축의 법적성이나 고딕 건축의 구조성은 모두 현재의 관점에서 귀납적 관찰을 하여 억지로 만들어낸 주관적 결과물일 뿐이며 이들 전통적인 양식에는 과정상의 객관적 엄밀성이 부족함을 지적하여 과정과 결과 사이의 보다 더 객관적인 타당성을 주장하는 건축가들도 있었다. 이들은 장식과 함께 전통도 부정하고 그 대안으로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역학적 구조성이나 기능적 풀이 등을 제시하였다.<sup>6)</sup>

3) Liliana Grassi, “Razionalismo dal Lodoli a G. Pagani” in Razionalismo Architettonica (Milano, Italy: Edizioni Bignami, 1966) : pp. 5-40.

4) 예를들어 Bruno Zevi는 ‘합리주의’란 단어 밑에 여러 다양한 근대 건축가들의 경향을 분류해 놓고 있다: Bruno Zevi, “I maestri del Periodo razionalita” in Storia dell’architettura moderna (Torino, Italy: Giulio Einaudi editore, 1950) : pp. 97-138.

5) Sartoris의 책은 합리주의와 약 20개에 달하는 근대 건축의 여러 주요주제 사이의 관계를 잘 요약해 놓고 있다: Alberto Sartoris, *Introduzione alla Architettura Moderna* (Milano, Italy: Editore Ulrico Hoepli, 1949); Bonicalzi의 소 논문은 근대 건축에서 합리주의 경향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Rosaldo Bonicalzi, “Eredita del Movimento Moderno” in *Architettura Razionale*, op. cit., pp. 61-74.

6) Massimo Scolari, “Avanguardia e Nuova Architettura”, *ibid.*, pp. 153-188.

합리주의 경향의 위와 같은 다양한 측면에 관계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국제성'과 '지역성'의 문제이다. 근대 건축이 지역성을 초월한 범세계적(universal) 가치인 기능성, 기계미학, 구조성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시대성(Zeitgeist)을 추구했고 그것이 국제주의 양식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물을 낳기는 했지만 '지역성' 역시 근대 건축을 얘기할 때, 특히 1930년대까지는, 빼 놓을 수 없는 주제이다. 알토로 대표되는 북구라과 근대 건축의 강한 자연적 특성이나 영국의 농촌건축, 혹은 스페인 카탈로니아 지방의 모데르니슴모(Modernismo) 등과 같은 극명한 지역성을 보이는 운동들은 물론이고 유럽 대륙에서 있었던 여러 근대 건축운동들은 각국의 민족적 특성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다. 이러한 국가적 특성은 합리주의 경향을 추구했던 운동 뿐 아니라 초, 중기 근대 건축 전반에 걸쳐서 관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딕과 바로크의 전통이 강한 남부 독일어권의 비엔나와 뮌헨지방 중심으로는 강한 장식적 경향이 남아 있었고, 데카르트의 합리주의 정신인 '카르테지안(Cartesian)'을 국가적 자존심으로 간직하고 고전 건축의 법칙화 전통이 강한 프랑스에서는 추상적 형태추구 경향이 강했고, 건축적으로는 후진국이었지만 강한 회화 전통을 자랑하는 네덜란드에서는 회화성의 건축적 표현 가능성을 추구하고, 게르만민족의 분류임을 자처하는 북부 독일어권에서는 구체적 건축모드의 실험보다는 기념비적 웅장성(monumentality)을 추구했다. 그리고 고전 건축어휘가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이태리에서는 극단적 개혁을 추구하는 건축가들 사이에서조차 최소한도의 이태리적 전통만은 지켜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근대 건축의 시기가 국제 정치적으로 보면 민족주의에 기초한 신 구체국들 간의 국가 이익쟁탈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위와 같은 국가나 지역별 특징은 근대 건축운동의 복잡한 면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다.

이태리 합리주의 건축은 이와같이 근대 건축의 주요 주제들 중의 2가지인 전통과 지역성의 문제

에 있어서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sup>7)</sup> 그럼에도 이태리 합리주의 건축은 근대 건축운동의 본류로 평가받지 못해 왔다. 그 이유는 대략 3가지 정도로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태리는 1900년대 들어 선진 강대국 대열에서 탈락했고 더군다나 파시즘이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정치권력 형태의 지배하에 선진제국주의에 대항한 폭력자로 규정되어 버렸고, 따라서 파시즘과 한 때 밀접한 관계를 가졌었던 이태리 합리주의 건축은 건축적 순수성을 상실한 부도덕한 정치놀음으로 비판받으면서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렸던 것이다.<sup>8)</sup> 둘째, 1940년대 이후에 국제주의 양식이 약 30-40년간 전성을 누린 결과 초 중기 근대 건축에 대한 연구의 관점마저도 그 영향을 받아 전통으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을 추구했던 운동만이 근대 건축의 적통(嫡統)으로 여기게 되었고 이렇게 볼 때 그러한 단절을 이루지 못한 이태리 합리주의 건축은 근대 건축운동에 있어서 후진성을 면치 못한 것으로 여겨졌다. 셋째, 내용상에 있어서 위와 같은 고전 건축 전통의 계승문제를 제외한 근대 건축의 '새로운 어휘'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태리 합리주의 건축은 기타 유럽 선진국들의 여러 운동을 모방 답습하고 이렇다할 기여를 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인 것이다.

이상의 3가지 이유들 중 첫번째와 세번째 주제

7) Cesare de Seta, "Cultura e Architettura in Italia tra le due Guerre: Continuità e Discontinuità" in *Il Razionalismo e l'Architettura in Italia durante il Fascismo* ed. by Silvia Danesi (Venezia, Italy: Alfieri Edizione D'Arte, 1976) : pp. 7-11; Alberto Cuomo, "Il Moderno come Oltromoderno" in *Terragni Ultimo* (Napoli, Italy: Guida Editori, 1987) : pp. 13-38.

8) 1970년대 이전에 쓰인 근대 건축사는 대체적으로 이와같은 경향을 나타낸다. 한 예를 들면, Zevi는 이것을 '위기'라고 표현했다: Bruno Zevi, "La crisi del razionalismo architettonico in Europa" in *Storia dell'architettura moderna*, op. cit., pp. 139-164.

는 이태리 합리주의 건축의 한계로 생각될 수 있지만 두번째 주제는 이제 더 이상 한계가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근대 건축을 실패로 규정짓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복고주의를 선택한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태리 합리주의에 바탕을 둔 신험리주의(Neo-Rationalism)를 그 중심 운동의 하나로 표방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한때 전통과 반대적 입장을 상징하던 '합리주의'란 단어가 이제는 전통을 상징하는 것으로 뒤바뀐 상황은 단순한 역사의 한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만은 아닌 것이다. 이것은 근대 건축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의 시대가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근대 건축에 대한 비판은 그 자체가 곧 이태리 합리주의에 대한 재평가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은 더 넓게는 지나치게 '새로운' 것에 집착한 한 쪽의 극단적인 시각에 의해 왜곡된 초 중기 근대 건축 전반에 대한 재고찰의 핵심적 예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근대 건축은 한 가지만 추구했던 것이 아니고 여러 다양한 건축적 이상에 대한 실험들로 이루어졌었다. 그 다양한 경향들 중 올바르게 평가되지 못하고 잊혀져 왔던 한 운동인 이태리 합리주의 건축이 50년이 지난 80년대 들어 그 동안 끊어져 왔던 역사적 연속성을 이어줄 수 있는 모델로 재평가되고 있고 50년 전에 새시대에 맞는 건축으로 제시했던 이상이 그 당시에는 큰 결실을 못보았다가 이제서야 다소 변형된 형태로 꽃피게 된 것이다.

### 3. 이태리 합리주의의 건축의 가능성과 한계 : 모더니티(Modernity)와 전통과 파시즘의 문제

위에서 이태리 합리주의와 관련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태리 합리주의를 근대 건축운동내에서 중요하지 않은 운동으로 평가받게 만든 3가지 점에 관해서 얘기했고 그 중 전통과 관련된 부분은 현시점에서 볼 때 새로운 가능성으로, 그리고 나머지 2가지는 한계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3가지 점은 사실상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

가 있을 것이다. 1920년대 중반까지의 이태리 건축은 아르누보에 해당하는 장식주의 경향의 리버티 운동(il Liberty), 고전 건축의 전통을 계승하려는 노베첸토 운동(Novecento Movimento), 그리고 신 정신을 표방하는 움직임의 3가지로 대표된다.<sup>9)</sup> 즉, 근대 건축운동에 있어서 주요 주제인 전통 장식 신정신의 문제가 이태리에서도 하나도 부족함 없이 논의되고 있었다. 어떤 면에서 장식적 경향이나 고전건축의 연속성 경향은 이태리의 전통상 이태리에서 가장 활발했었다. 그런데 문제는 신정신을 추구하는 건축운동이 이태리에서는 1920년대 중반까지 미진하여 구체적인 양식으로 발전하지 못한 채 기타 유럽 선진국들의 것들을 수입 모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던데 있었다. 전통과 장식을 배격하는 실험운동만을 참다운 근대 건축으로 여기던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이 당시의 이태리 건축은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1926년 1928년 그리고 1931년은 이태리 근대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20년대 중반까지 이태리 건축의 후진성에 쏟아지는 실망감에 반발이라도 하듯 테라니를 포함한 밀라노의 젊은 건축가 7명은 1926년에 '그룹포7(Gruppo 7)'을 결성하고 이것이 발전되어 1928년에 로마에서 미아르(MIAR: Movimento Italiano per l'Architettura Razionale)'가 결성된다.<sup>10)</sup> 이 두 단체는 제1목표를 분 명 신

9) 파시즘 이전까지의 이태리 근대 건축에 대한 소개는 : R. A. Etlin, *Modernism in Italian Architecture* (Cambridge, MA. : The MIT Press, 1991) : pp. 3-375; Dennis P. Doordan, *Building Modern Italy, 1914-1936* (New York :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88) : pp. 6-110; Cesare DeSeta, *La cultura architettonica in Italia tra le due guerre* (Roma : Editori Laterza, 1978) : pp. 3-167.

10) Gruppo7과 MIAR에 대한 개괄적 소개는 : 위의註 9; Enrico Mantero, "Vier Architekten des Comaskischen Rationalismus" in Giuseppe Terragni 1904-43: *Moderne und Faschismus in Italien*, ed. by Stefan Germer (Munchen, Germany : Klinkhardt & Biermann, 1991) : 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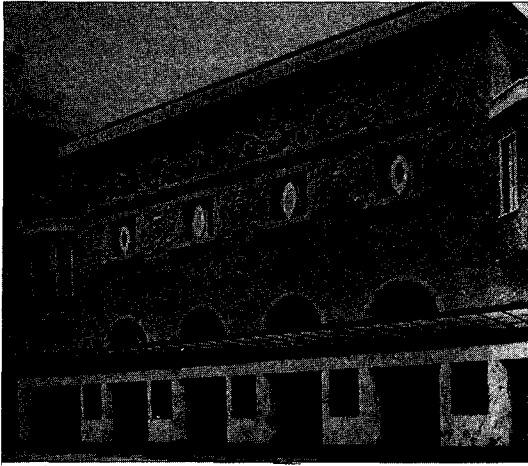
건축운동에 두었고 리버티 운동의 장식화 경향에는 반대했지만 노베첸토 운동류의 전통수용 문제에 있어서는 유럽의 다른 여러 운동들 처럼 명확한 반대 입장은 취하지 않았다. 그룹포7과 미아르를 이끌어던 건축가들이 발표했던 상당한 양의 선언문들이나 에세이들을 분석해 보면 그 내용은 모더니즘 및 신 건축운동의 찬양이 주요 관심인 것은 틀림없지만 이와 함께 모더니즘 자체가 반드시 전통부정적 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의적(pluralistic)일 수 있으며 이 다의적 내용 중 전통 혹은 역사는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강하게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1931년은 또 다른 주요한 전환점이 된다. 1931년 이전까지 이태리 합리주의 건축은 그 당시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서 시도되던 새로운 건축운동과 보조를 맞추려는 쪽에 치우쳐 있었고 이런 점에서 볼 때 전통이라는 문제를 완전 부정은 못 하더라도 가능한 한 피해가려는 경향을 나타냈었다. 그러던 중 1931년의 '이태리 합리주의 건축 제2차 전시회'를 기점으로 파시즘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전체적인 관심거리는 민족주의에 입각한 이태리적인 것을 찾는 쪽으로 흐르게 되고 건축에서도 이태리 고전 건축의 전통과 근대 건축의 신 정신을 합치시키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1930년대 이전까지의 이태리 건축의 경향은 근대 건축의 신정신을 추구하는 국제주의적 흐름에 맞추려는 편이었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기타 유럽 선진국에서의 운동들을 수입 모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몇가지 예를 들어 보면, 이태리 근대 건축의 효시로 평가되는 코르소극장(Corso Cinema-Theater : 1915-1918)의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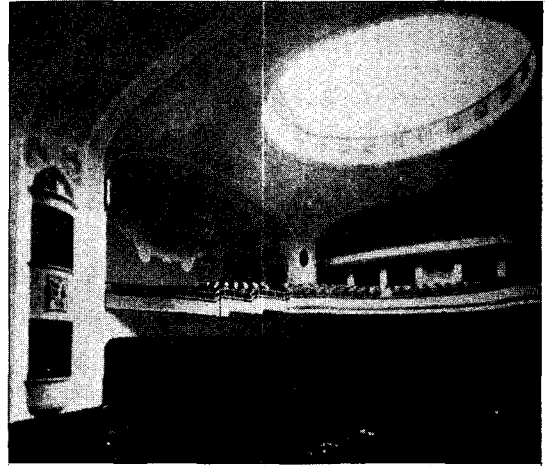
우, 강한 수평성과 신재료의 구조성을 나타내는 입구부의 차양(그림1)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 많이 시도되던 건축어휘이고, 실내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캔티레버에 의한 2층 객석 발코니의 처리(그림2)는 독일 표현주의 건축(German Expressionism)의 어휘와 매우 흡사하다. 1927년의 제3회 국제 장식예술 전시회(The Third International Exposition of Decorative Arts)에 그룹포7 건축가들이 출품한 작품들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피지니(Figini)의 도쁘라보로(Dopolavoro : 그림3)는 베스닌(Vesnin) 형제의 노동궁(Palace of labor)과 제복 건물 모두 흡사하며, 테라니(Terragni)의 석유회사 사옥안(Officina per la Produzione del Gas : 그림4)은 마치 그 당시 주요 건축가들의 어휘들을 모아 놓은 백과사전 같다. 이 당시 이태리 합리주의 건축의 주요 관심사는 분명 전통의 수용쪽 보다는 신정신을 추구하는 국제주의적 경향을 쫓는 쪽이었다.<sup>11)</sup> 즉 기체미학 혹은 구조미학으로 표현되는 논리적 계산성과 실내 프로그램의 기능적 해결로 표현되는 추상적 분할성이라는 다분히 탈 전통적 국제 경향을 수입, 그것에 보조를 맞추려는 경향이 강했다. 따라서 전통의 문제를 떠난 상태에서의 이태리 합리주의 건축은 분명 다른 여러 선구적 운동을 쫓는 아류로 분류되도 좋을 듯 싶다. 이런 상황에서 이태리 합리주의 건축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전통수용의 경향이 이태리 파시즘에 의해 일어난 민족주의 운동과 함께 전면에서 대두되게 된다. 즉, 1931년의 전시회를 계기로 이태리 합리주의 건축의 주요 관심사는 '전통대 근대성(modernity)' 및 '민족주의대 국제주의'라는 2쌍의 대립적 개념을 통합하는 쪽으로 바뀌

11) 이태리 합리주의 건축과 여러 근대 건축운동과의 관계에 대한 문헌은 : Daniele Vitale, "Le scuole di architettura" in *Architettura Razionale*, op. cit., pp. 253-268; R. A. Etlin, "The birth of Italian Rationalism", op. cit., pp. 225-254; 특히 Sartoris의 책은 근대건축운동의 여러중요주제들(예를들어 Technology문제, 규격화, prefab, 기능 등등)과 이태리 합리주의와의 관계를 잘 요약해 놓고 있다 : Alberto Sartoris, op. c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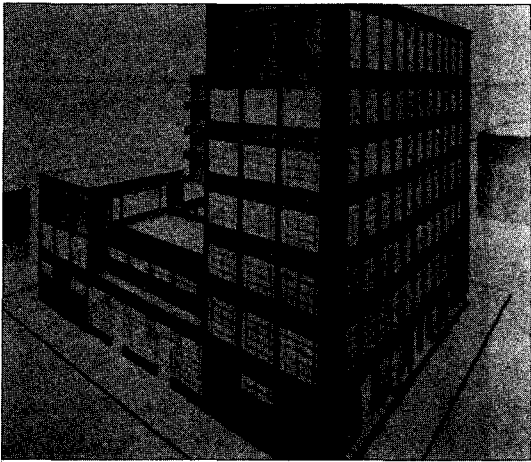
261-264:Ornella Selvafolta, "Cesare Cattaneo und Giuseppe Terragni : Schnittpunkte einer Bewussten Modernität", *ibid.*, pp. 265-292; Vittorio Gregotti, "Milano e la cultura architettonica tra le due guerre" in *Il Razionalismo d'architettura in Italia durante il Fascismo*, op. cit., pp. 1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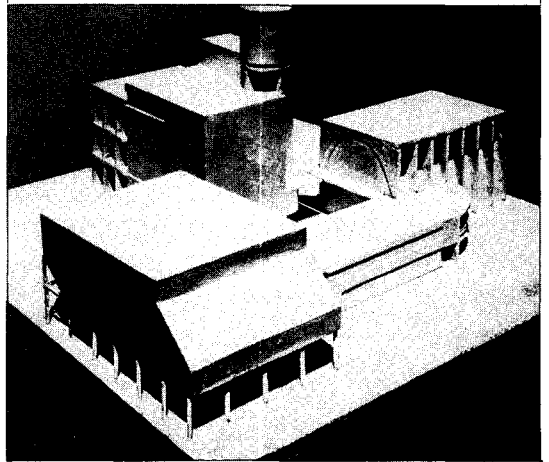
〈그림 1〉 코르소 극장 외관



〈그림 2〉 코르소 극장 실내 전경



〈그림 3〉 피지니(Figini)의 도뵈라보로(Dopolavoro)



〈그림 4〉 테라니의 석유회사 사옥인  
(Officina per la produzione del Gas)

게 된다. 그런데 근대 건축운동이 끝난 현 시점에서 되돌아 보면 이러한 2쌍의 개념이 근대 건축운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지만 그 당시에는 '새로운 것'이라는 더 큰 주제에 가려 그리 관심을 끄는 주제는 못되었었다. 이와같이 관심 주제 자체가 동시대 내에서 핵심주제가 아닌 것으로 향하게 되고 더불어 파시즘의 신흥제국주의와 구제국주의 간에 파워게임이 심화되면서 이태리 합리주의 건축은 50년 후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내포한 채 그 당시 국제무대에서는 관심권 밖의 운동으로 밀려나 이태리 내부의 문제로 남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근대 건축운동에 있어서 이태리 합리주의 건축이 독특하게 차지하고 있는 미완의 가능성인 전통수용 문제가 이태리 합리주의 건축에 대한 강한 제약요소인 파시즘과의 밀착에 의해 주어졌다는 다소 아이러니칼한 상황이 남게 되는 것이다. 이태리의 파시즘 건축은 독일의 제3제국 건축 및 러시아의 볼셰비키혁명 건축과 함께 부도덕한 정치권력의 선전도구가 되어 건축적 순수성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혹은 러시아 문제는 좀 더 복잡한 상황하에서 다른 요소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의 범주에서 빠지기도 하고, 또한 위와 같은 평가가 승전국들의

일방적인 관점이 아니냐는 의문도 남지만 이러한 것들은 본 논고의 주제 밖의 문제인 것 같다. 중요한 것은 이태리 파시즘 건축의 경우 독일 경우와는 달리 건축적 순수성에 대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측면이 보인다는 데에 있다.<sup>12)</sup> 첫째, 이태리 합리주의 건축과 파시즘 건축의 밀착은 어느 한 쪽이 다른 한쪽을 필요로 해서 의식적으로 접근을 했다거나 혹은 이용을 했다거나 하는 형태를 띠지 않았다. 무소리니가 권력을 잡기 시작하는 1920년대 후반만 해도 권력집단들 사이에 파시즘을 대표할 건축양식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반대로 건축가들 입장에서 보면, 그 시기는 매우 급변하는 시기였고 파시즘이 확실하게 권력을 잡는다는 그리고 그 권력이 20년을 지속하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시기였다. 다

12) 파시즘과 이태리 합리주의와의 관계에 있어서, Etlin과 Zevi들은 1930년대의 이태리 합리주의 건축을 파시즘과 강하게 연관시켜 해석하고 있고, Schumacher와 Ghirardo와 Veronesi들은 면죄부를 주려는 시각이며, Ciucci와 Castronovo와 Patetta 등은 중립적 입장에서 연대기적 서술을 주로 하고 있다: R. A. Etlin, op. cit., pp. 377-437; Bruno Zevi, op. cit. (1950), pp. 139-164; T. L. Schumacher, "The Janus face of Italian Architecture: 1920-1940" in *Surface and Symbol*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1): pp. 19-32; Diane Ghirardo, "Politik und Architektur in Faschistischen Italien" in *Giuseppe Terragni 1904-43: Moderne und Faschismus in Italien*, op. cit., pp. 39-55; Giulia Veronesi, *Difficoltà politiche dell'architettura in Italia, 1920-1940* (Milano, Italy: Libreria Editrice politecnica Tamburini, 1953); Giorgio Ciucci, "Il dibattito sull'architettura e la città fasciste" in *Storia dell'arte italiana, parte seconda/ volume terzo* (Torino, Italy: Giulio Einaudi Editore, 1982): pp. 261-389; Valerio Castorono, "Strutture economico-sociali e Fascismo fra le due guerre" in *Il Razionalismo e l'Architettura in Italia durante il Fascismo*, op. cit., pp. 12-16; Luciano Patetta, "Libri e Riviste d'Architettura in Italia tra le due guerre", *ibid.*, pp. 43-50.

만 건축과 정치라는 두 분야에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자임하던 두 그룹 사이에서 어떤 형태로든 서로 상당한 정도까지 교우가 있었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민족주의'와 '개혁'이라는 공통의 목적은, 그 당시 국제적으로 이태리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 두 그룹을 밀착시키기에 충분한 흡인력을 가진 개념이었다. 둘째, 파시즘을 위해 봉사했던 건축가들은 독일의 경우 만큼 큰 정치적 이익을 얻지 못했고 그 밀착의 정도에 있어서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건축 고유의 예술성을 해칠만큼 심하지 않았었다. 이태리 파시즘이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변질된 형태를 띠게 되자 합리주의 건축가들은 파시즘 저항운동에 참여, 많은 건축가들이 비극적 죽음을 맞게 된다. 셋째, 이태리의 파시즘은 독일의 경우와 달리 침략과 전쟁에 의한 국가이익 달성 보다는 오히려 어려운 국제적 상황 아래에서 국가의 운명을 지키려는 '민주주의' 성향이 강했고,<sup>13)</sup> 건축가들 역시 독일의 경우와 달리 정치권력의 위용을 선전하는 것 보다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태리에 가장 적합한 건축은 무엇인가를 놓고 신 건축운동과 전통수용 사이에서 고민한 흔적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sup>14)</sup> 이것은 이태리 합리주의 건축가들이 파시즘과 밀착되어 있던 시기의 작품과 파시즘에 대항하던 시기의 작품들 사이에 변함없이 신 건축운동과 전통수용이라는 건축고유

13) 이태리 파시즘과 합리주의 건축을 그 당시의 극심했던 국제전쟁속에서 이태리의 전통을 지키려는 민족주의 운동으로 소개하는 문헌으로: Alberto Cuomo, "La maschera del sacro" op. cit. (1987): pp. 153-188.

14) Susanne von Falkenhausen은 그의 짤막한 article에서 이 주제를 제기 하고 있다: Susanne von Falkenhausen, "Die Moderne in Italien: Avantgarde-Faschismus-Rezeption", in *Giuseppe Terragni 1904-43: Moderne und Faschismus in Italien*, op. cit., pp. 21-38.; 이 주제에 대하여 이태리 근대건축의 전반적 상황내에서 설명한 문헌은: T. L. Schumacher, "The Janus face of Italian architecture: 1920-1940", op. cit. (1991): pp. 19-32.

의 주제들이 공통으로 나타나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이상을 고려해 볼 때 이태리 합리주의 건축은 파시즘이라는 권력 형태와의 관계에서 분리되어 순수 건축형태적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으며<sup>15)</sup> 그 관점은 당연히 이태리 고전건축 전통의 수용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4. 결론

근대 건축을 전통과의 단절을 통한 새로운 건축어휘의 창출로만 평가하려는 시각에서 본다면 이태리 합리주의 건축은 이렇다하게 기여한 것이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태리 합리주의 건축가들에게 있어서 고전 건축의 전통으로부터 완전 단절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고 이렇게 볼 때 '새로운 것'에 대한 추구가 주류를 이루었던 동시대의 상황에서 이태리 합리주의에 대한 과소평가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

나 1970년대 들어 근대 건축을 전통과 연관지어 재평가 해 보려는 움직임과 함께 복고주의 경향이 대두되면서 20세기 초반에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했던 이태리 합리주의 건축이 제시했던 또 다른 하나의 이상인 전통과 근대 건축과의 합일이라는 주제가 새로운 가능성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 건축이 근대 건축과 단절될 수 없듯이 근대 건축 역시 그 이전의 전통과 완전히 단절될 수 없었다는 새로운 인식 아래, 현대 건축이 처한 상황에 대한 실마리는 근대 건축을 전통과의 단절이 아닌 합일로 재해석하는 데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서만 근대 건축과 현대 건축 사이의 또 다른 단절을 막을 수 있으며 근대 건축이 지녔었던, 그러나 결실을 못보고 잊혀졌던 또 다른 가능성인 전통수용 문제를 올바르게 재해석하여 '근대 건축 이전-근대 건축-현대 건축'이라는 건축역사상의 연속성을 새로이 세울 수 있는 것이다.

15) 이러한 관점의 예로: Silvia Danesi, "Aporie dell' Architettura italiana in Periodo Fascista-Mediterranea e Purismo" in Il Razionalismo e l'Architettura in Italia durante in Fascismo, op. cit., pp. 21-28.



## 참고문헌

- Architettura Razionale, XV Triennale di Milano-Sezione Internazionale di Architettura (Milano, Italy : Franco Angeli Editore, 1973).
- Ciucci, Giorgio, "Il dibattito sull'architettura e la città fasciste" in Storia dell'arte italiana, parte seconda/volume terzo (Torino, Italy : Giulio Einaudi Editore, 1982) : pp. 261-389.
- Cuomo, Alberto, Terragni Ultimo (Napoli, Italy : Guida Editori, 1987).
- DeSeta, Cesare, La cultura architettonica in Italia tra le due guerre (Roma : Editori Laterza, 1978).
- Doordan, Dennis P., Building Modern Italy, 1914-1936 (New York :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88).
- Etlin, R. A., Modernism in Italian Architecture (Cambridge, MA. : The MIT Press, 1991).
- Giuseppe Terragni-la casa del Fascio, ed. by L. Ferrario (Roma : Istituto Mides, 1982).
- Giuseppe Terragni 1904-43 : Moderne und Faschismus in Italien, ed. by Stefan Germer (Munche, Germany : Klinkhardt & Biermann, 1991).
- Il Razionalismo e l'Architettura in Italia durante il Fascismo, ed. by Silvia Danesi (Venezia, Italy : Alfieri Edizione D'Arte, 1976).
- Sartoris, Alberto, Introduzione alla Architettura Moderna (Milano, Italy : Editore Ulrico Hoepli, 1949).
- Schumacher, T. L. Surface and Symbol (New York :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1).
- Veronesi, Giulia, Difficolta politiche dell'architettura in Italia, 1920-1940 (Milano, Italy : Libreria Editrice politecnica tamburini, 1953).
- Zevi, Bruno, Storia dell'architettura moderna (Torino, Italy : Giulio Einaudi Editore, 1950).

# Classical Tradition in the Modern Movements

— Architectural Historical re-evaluation on the possibility of Italian Rationalism —

Yim, Seock Jae

(Architect, Archiban Architecture Office  
and Lecturer of Kyoung-Buk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Italian Rationalism held a specific position in the Modern Movements of Architecture, due to the fact that Italian Rationalism could not totally escape from the classical tradition of Italy. Until the seventies, Italian Rationalism had been criticized for having made no contribution to the progressive aspects of the Modern Movements owing to the very keeping of tradition. After the seventies, however, there emerged a movement which tries to reinterpret the Modern Movements of Architecture in relation to tradition and under this new situation, Italian Rationalism is believed to have a historical possibility of unifying tradition with modernity. This study is to show how Italian Rationalism struggled with the issue of tradition, why Italian Rationalism was under-evaluated and which historic lesson we can learn from it in the contemporary days of the revivalistic Post-Modernism.